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세계 1,000대 은행 및 국내은행 동향
영국 중소기업금융과 P2P 대출의 성장

북한포커스

개도국 금융분야 지식공유 주요사례 및 시사점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 | |
|------------------------------|---|
| 세계 1,000대 은행 및 국내은행 동향 | 1 |
| 영국 중소기업금융과 P2P 대출의 성장 | 3 |

북한포커스

| | |
|--------------------------------|---|
| 개도국 금융분야 지식공유 주요사례 및 시사점 | 5 |
|--------------------------------|---|

금융시장

| | |
|--------------------|---|
| 금리 · 환율 · 주가 | 7 |
|--------------------|---|

세계 1,000대 은행 및 국내은행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서대훈 (kdb14@kdb.co.kr)

- ◆ '20.7월 The Banker지 발표자료에 따르면 '19년 중 세계 1,000대 은행의 자산, 자본 및 수익 규모 증가
- ◆ 상위 10대 은행의 순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국 은행이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대 은행내 국내은행 순위는 소폭 변동
 - KB금융(61위, 전년대비 2↓), 신한금융(65위, 2↓), 산업(67위, 3↓), 하나금융(81위, 4↓), 우리금융(91위, -), 기업(96위, 1↓), 농협금융(100위, 1↑)
- ◆ 코로나 경제위기에 따른 은행 경영환경의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적극적인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필요

□ '20.7월 발표된 The Banker지에 따르면 '19년 중 세계 1,000대 은행의 자산, 자본 및 수익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

- '19년기준 세계 1,000대 은행(기본자본* 기준)의 기본자본은 8.8조달러(전년대비 6.1% 증가)이며, 총자산은 128.1조달러(전년대비 4.3% 증가)
 - * Basel III 기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은행의 자본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
- 순이익(세전)은 1.2조달러(전년대비 2.1% 증가)이며, '16년 이후 꾸준히 증가
 - 기본자본이익률(ROC)과 총자산이익률(ROA)은 각각 13.18%, 0.90% 기록

세계 1,000대 은행의 주요 영업실적

(단위 : 천억달러, %)

| 구분 | '16 | '17 | '18 | '19 |
|---------|---------|---------|---------|---------|
| 기본자본 | 73.7 | 82.4 | 82.9 | 88.0 |
| 총자산 | 1,134.9 | 1,236.5 | 1,228.0 | 1,281.1 |
| 세전순이익 | 9.6 | 11.1 | 11.4 | 11.6 |
| 기본자본이익률 | 13.04 | 13.50 | 13.69 | 13.18 |
| 총자산이익률 | 0.85 | 0.90 | 0.92 | 0.90 |

주 : 기본자본이익률은 세전순이익/기본자본, 총자산이익률은 세전순이익/총자산
자료 : The Banker

- 세계 1,000대 은행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오세아니아 376개, 유럽 264개, 북미 198개, 중동 68개, 중남미 58개, 아프리카 36개로 구성
 - 상위 10대 은행은 중국 4개, 미국 4개, 영국 1개, 일본 1개로 구성

□ 상위 10대 은행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00대 은행 내 국내은행 순위는 소폭 변동

- 상위 10대 은행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며, 최근 3개년 동안 10대은행 내에서의 순위 변동만 존재하고 신규로 진입한 은행 전무
 - 10대 은행의 기본자본은 2.2조달러(전체의 25.5%), 총자산은 29.6조달러(전체의 23.1%)

세계 10대 은행 순위 (기본자본 기준)

| 순위 | '17 | '18 | '19 |
|----|--------------------------------|--------------------------------|-----------------------------------|
| 1 | ICBC | ICBC | ICBC(中) |
| 2 | China Construction Bank | China Construction Bank | China Construction Bank(中) |
| 3 | Bank of China | Agricultural Bank of China | Agricultural Bank of China(中) |
| 4 | Agricultural Bank of China | Bank of China | Bank of China(中) |
| 5 | JPMorgan Chase | JPMorgan Chase | JPMorgan Chase(美) |
| 6 | Bank of America | Bank of America | Bank of America(美) |
| 7 | Wells Fargo | Wells Fargo | Wells Fargo(美) |
| 8 | Citigroup | Citigroup | Citigroup(美) |
| 9 |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 HSBC Holdings | HSBC Holdings(英) |
| 10 | HSBC Holdings |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日) |

자료 : The Banker

- 국내은행의 경우 상위 100대 은행에 농협금융지주가 새롭게 진입하면서 7개 은행이 포진
 - KB금융(61위, 전년대비 2↓)·신한금융(65위, 2↓)·산업은행(67위, 3↓)·하나금융(81위, 4↓)·기업은행(96위, 1↓)은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우리금융(91위, -)은 전년순위 유지, 농협금융(100위, 1↑)은 전년대비 상승
 - * '19년 발표 : KB금융 59위, 신한금융 63위, 산업 64위, 하나금융 77위, 우리 91위, 기업 95위, 농협금융 101위
 - 7개 국내은행의 기본자본 성장률은 2.3%로, 1,000대 은행의 기본자본 성장률 6.1%를 하회(10대 은행의 기본자본 성장률은 5.97%)
 - 또한, 평균 총자산이익률은 0.67%(전년대비 0.08%p 감소), BIS 총자본비율은 13.82% (전년대비 0.92%p 감소) 기록

□ 코로나 경제위기에 따른 부실자산 증가 우려, 저금리 추세 지속 등 은행 경영 환경의 악화가 계속됨에 따라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의 중요성 증대

- BIS*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신용악화로 '20년 1분기중 미국·EU은행 중심으로 대손충당금이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 지속시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발생 가능
 - * BIS(2020.6), "Annual Economic Report"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은행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을 통한 손실흡수 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 모색 필요

영국 중소기업금융과 P2P 대출의 성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 경 수 (yksoo@kdb.co.kr)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이 부진함에 따라, P2P 대출이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원천 중 하나로 부상
- ◆ 중소기업 앞 P2P 대출의 확대는 P2P 업체들의 중소기업 금융수요 충족, 정책금융 기관 투자, 세제 혜택 등에 힘입은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사태 등 경영환경 악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지속을 위한 업계의 시도는 지속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천 중 하나로 P2P 대출*의 역할이 부각

* 최근 기관투자자 비중 증가로 P2P 대출 대신 'Marketplace Lending'으로 지칭하기도 함

- 영국 경제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은행들의 중소기업 앞 자금공급은 대기업 대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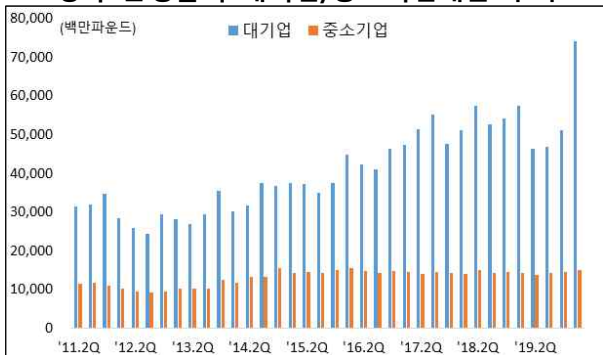
* 소수 대형은행 집중도가 높은 은행산업 구조적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규제(바젤Ⅲ) 등에 기인

- 영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고용인원의 60.4%, 매출액의 52.2%를 차지('19년 기준)
- 은행권 대기업대출은 '13년 이후 큰 폭 증가 추세가 지속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2~'14년 기간 중 다소 증가하다가 '15년부터는 정체

- 반면, P2P 업체들의 중소기업대출은 '12~'19년 사이에 연평균 약 70%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주요 원천 중 하나로 부상

-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은행 대비 P2P 업체의 비중은 '12년 0.2%에서 '19년 4.4%까지 증가

영국 은행들의 대기업/중소기업대출 추이



주 : 분기별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Bank of England

중소기업대출 취급액 및 P2P 업체 비중



주 :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Bank of England, British Business Bank

□ 중소기업 앞 P2P 대출 확대는 중소기업 금융수요 충족, 정책금융기관 투자 및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투자자 유입 확대 등에 기인

- P2P 대출은 양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족분(Funding Gap)*을 보완하는 한편, 질적 측면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한 조달 신속성, 편리성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충족

* Deloitte(2013)는 영국 중소기업의 Funding Gap 규모가 '12년 10~11십억파운드에서 '17년에는 22십억파운드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영국 최대 P2P 업체인 Funding Circle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심사 등 과정 신속성, 절차 간편성, 경쟁력 있는 금리 등을 동 업체를 선택한 주요 이유로 제시

- 시장친화적 규제 도입,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참여,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유입 확대도 성장에 기여

- '14년 감독당국(FCA)에 의해 최초 도입된 규제가 민간 P2P협회의 자율 규제 안과 유사한 점에서 보듯이 규제가 업계 성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

- British Business Bank*는 '12년 설립 이후 Funding Circle, Assetz Capital 등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는 P2P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

*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 정책금융기관

** 업체(년도, 금액[파운드]) : Funding Circle('14, 4천만), Thincats('19, 1.5천만), Assetz Capital('20, 2천만)

- '16년에는 개인의 P2P 업체 앞 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혁신형개인저축계좌(Innovative Finance ISA)를 도입, 투자자 유입 촉진

- 과거 개인투자자 중심이던 투자자 구성이 은행, 펀드,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까지 다변화되면서 투자가 확대된 점도 업체의 안정성 확보와 성장에 일조

□ 최근 규제 강화, 코로나19 사태 등 경영환경 악화 요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세 유지를 위한 업계의 다각적 시도는 지속될 전망

- 최근 일부 업체의 리스크 관리 역량 부족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규제가 강화('19.6월)*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 유입 감소 등 악영향 예상

*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정보공시 대상 확대, 리스크 관리체계의 정교화 등

-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소기업 및 개인대출 위주의 신용위험 확대, 자금을 회수(인출)하려는 투자자 증가 등 안정적인 영업 유지에 애로 발생

- 향후에도 P2P 업계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보완하면서 다방면으로 성장세 지속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코로나 특별대출 제도(CBILS*) 참여, 상품 및 영업대상 다양성 제고, 해외 시장 진출**, 챌린저 은행 내지 기존 은행권과의 협력 등 지속 추진 예상

* 정부가 코로나 피해 기업 대출의 80%를 보증하는 제도로 민간 금융기관들을 통해 집행되며, 중소기업들은 은행뿐 아니라 Funding Circle, Assetz Capital 등 P2P 업체를 통해서도 동 제도 이용 가능

** 실례로, Funding Circle은 영국 외에도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영위 중

개도국 금융분야 지식공유 주요사례 및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정지순 (jsjung@kdb.co.kr)

- ◆ 우리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다양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며 개도국 앞 금융 제도, 시스템 등에 대한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수하고, 개도국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지식공유사업을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후속사업과 연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식공유사업 활성화

□ 개도국 금융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금융 관련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협력대상국의 제도구축과 역량배양을 지원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

- 다양한 KSP를 통하여 금융 제도, 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에 대한 한국의 발전 경험 및 노하우를 개도국 앞 전수
 - 금융 시스템과 거래의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 수출을 통하여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영업확대에 우호적 기반 조성

금융 분야 KSP 주요사례

| 기관명 | 대상국가 | 주요 내용 |
|----------|-------|--|
| 예금보험공사 | 몽골 | ·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10년) · 예금보험법 실현 ('11년) |
| | 탄자니아 | · 예보제도 현대화를 위한 독립 예금보험기구 설립 및 역량강화 지원 ('11~'12년) · 예금보험 IT시스템 구축 지원 ('14년) |
| | 필리핀 | · 예금보험 IT시스템 구축 지원 ('14년) |
| 신용보증기금 | 카자흐스탄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11년) |
| | 인도네시아 | · 중소기업 정책금융제도 개선방안 ('14~'15년) |
| 기술보증기금 | 태국 |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지원 시스템 구축 ('16~'17년) |
| 한국자산관리공사 | 카자흐스탄 | · 은행권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기구의 조직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부실채권 관리방안 수립 ('15~'16년) |
| | 베트남 | · DATC(Debt and Asset Trading Corporation)의 국영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 ('13~'14년) |
| 한국개발연구원 | 이집트 | · 소액결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 방안 ('18~'19년) |

자료 : KSP 및 각 기관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등은 개도국 대상 초청연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우리의 업무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 * 국내 금융공공기관, 민간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21개 회원기관이 글로벌 금융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
- 금융감독원은 베트남중앙은행,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 등 개도국 금융감독 담당자 대상으로 OJT 진행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매년 개도국 공무원·금융관계자 초청연수, 포럼·세미나 등 수시 개최

□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지식공유사업을 해외진출 기반 확보 등에 활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의 신규수요 발굴 등을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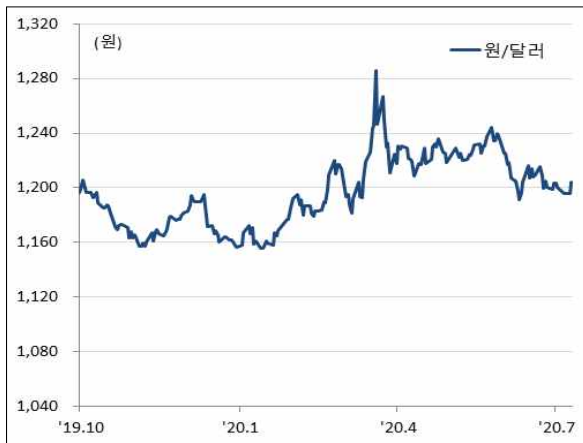
-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및 후속 수익사업과의 연계 강화에 지식공유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
 - 금융 제도·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공유로 한국과 유사한 금융환경을 현지에 구축함으로써 후속사업 수주와 해외 영업기반 확대에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
 - KCB(코리아크레딧뷰로)는 KSP “인도네시아 소비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개인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등 수행(‘10~’12년) 후, ‘15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발주한 신용정보 집중시스템 구축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
 - KRX(한국거래소)는 KOICA의 “호치민증권거래소 개설사업”에 자문 참여(‘96~’02년) 후, ‘16년 베트남 차세대 증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계약 체결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개도국 대상 ODA 자금지원이 가능한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 지식공유사업 활성화
 - 기획재정부가 World Bank 등과 체결한 지식공유 공동컨설팅 MOU*를 활용하여 역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금융기구와 지식공유 신규수요 발굴 추진
 - * AfDB(‘10.9월), IDB(‘11.3월), ADB, EBRD(이상 ‘11.5월), WB(‘11.9월) 등
 - ADB-아시아태평양, AfDB-아프리카, EBRD-유럽, IDB-미주, CAF-중남미 등의 지역 기반으로 개도국 정부, 기업 등과 협력관계 구축
 - 개도국 제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을 국제금융기구의 ODA 자금지원과 우리 기업의 경험·기술을 활용한 후속 수익사업 수주 등과 연계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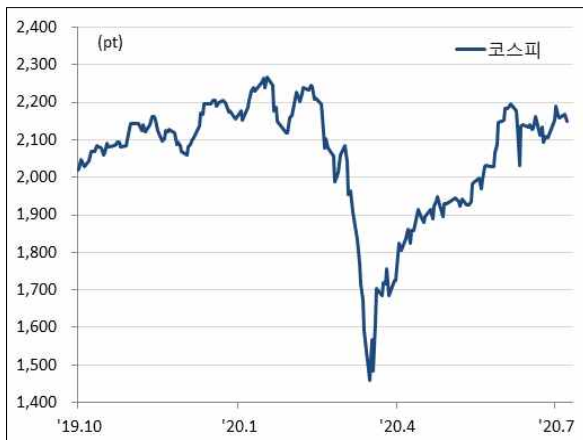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0.849% (1.1bp ↑), 신용스프레드 70.6bp (1.1bp ↓)



환율 원/달러 1,204.5원 (5.9원 ↑), 엔/달러 106.93엔 (0.58엔 ↓)



주가 코스피 2,150.25pt (0.1% ↓), 코스닥지수 772.81pt (2.74%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86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